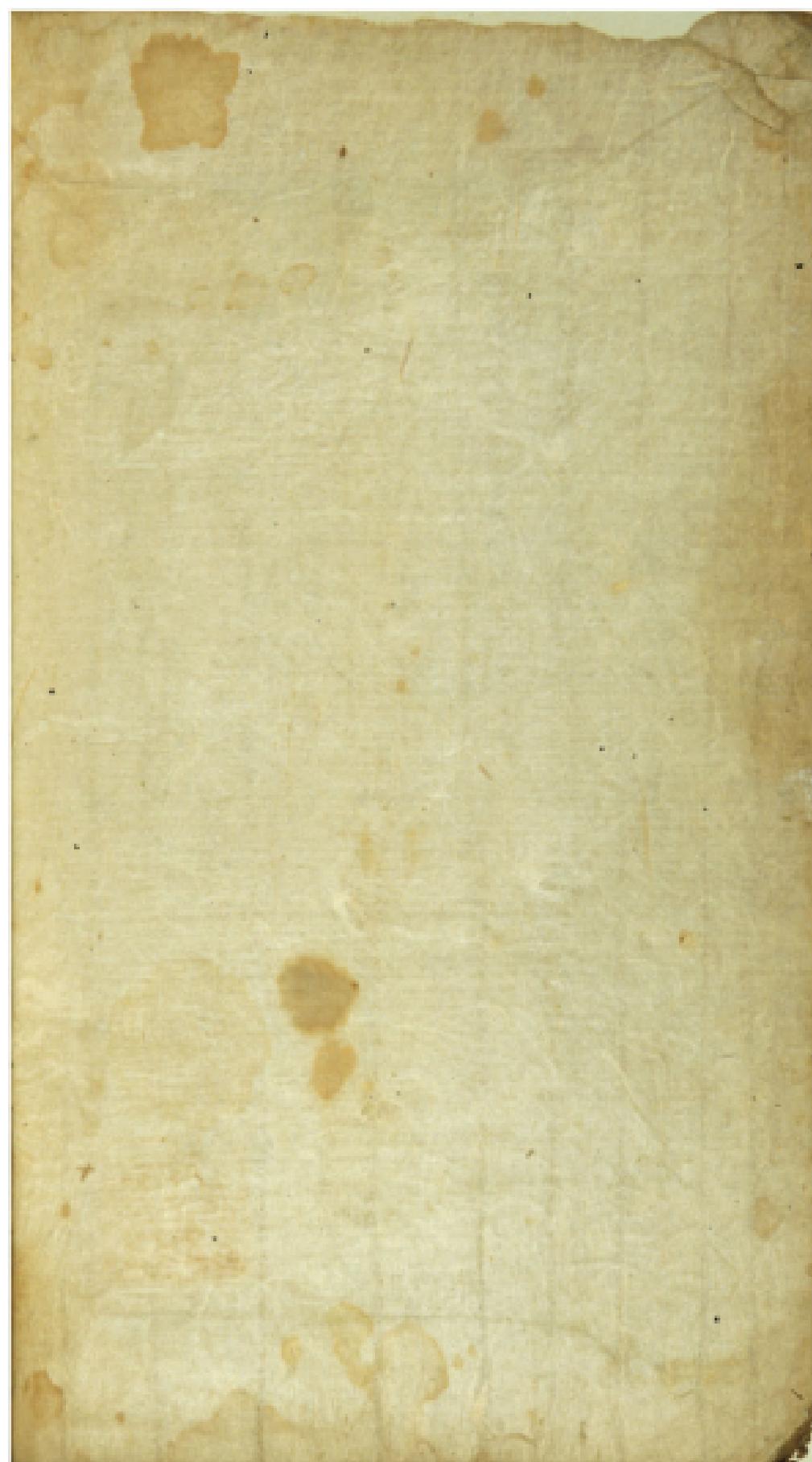


卷十七

鳥獸蟲草竹未

杜詩
卷十七



分類社工部詩卷之十七

鳥古詩十一首 律詩二十五首

鳳凰在室

亭亭鳳凰臺北對西康州

高
麗
同
谷

郡を나라○노는 凤凰臺
曰王로西康州를對す

北
西伯今寂寥

西伯文王

이니其時예鳳鳴
라憶悠亡達也

라. 西伯 | 이지과외호

山峻路絕

石林氣高浮
의하노마고리
초니돌수프리

하사리 이가최 노
하리자 氣運이 노

피벗安得萬丈梯為君上上頭
도다 님_이 言爲_하야 웃_그 恐有無母雞飢寒日啾啾
테 을_나 가려_노 나 날 우려_잇 는_나 천_노 라 我能割心血飲
啄慰孤愁 대_능 하심통과_파 를_빠 대_야 마_시
대_식 악_개 하_야 외_로 온_시 르_를 험
勞_리 라_라 心以當竹實炯然忘外求血以當醴泉
豈徒比清流 大_鳳 이_非 竹實不食亡_이 非醴泉
고_고 과_로 대_醴 泉_을當_하 면_이 대_호 文_문 고_고
그_는 노_물 와_고 所重王者瑞敢辭微命休
둘_되 놔_나 리_도 萬丈梯_인 데_드 리_로 어_더

指鳳兮、 다 냥 | 稽鳳難之亂死兮、 欲以心
血로 음식之而 不愛微軀也 | 라休止謂死 |
기니 痞子애(其死) | 若休 | 라兮 | 다 | 重罰니
기니 바는 王者의 桂瑞 | 그대 | 9 | 고 앗 두
수되 주그모 | 坐看殊翻長舉意 | 八極周 | 10 |
로 말리아 | 坐看殊翻長舉意 | 八極周 | 10 |
기러 뜸 | 들드러 | 八極 | 예두 | 自天銜瑞圖飛下
루느 | 로 몰안자 | 與보리 | 타 | 自天銜瑞圖飛下
十二樓圖 以奉至尊鳳以垂鴻猷再光中興
業一洗堯生憂 (十二樓는仙人所居 | 다 鳩
猷는大道也 | 라 | 하늘로
브러신祥瑞 | 원국을 드려 열드樓에 | 라
느 | 리거든國 | 脱 | 남금워 | 맛종고國 | 데
큰道理 | 둘드리워 | 신王業을 다 시
벗내야 | 한번尧生의 사를 몰사스리라 | 濡

襄正為此群盜何淹留

此上事一思見賢人
也以治平之效

也 | 라 ○ 기 훈 ○ ○ 모 정 허 이 몰 為亡
나 몰 盜 犯 이 어 는 어 모 라 시 라 오

朱鳳行

此詩는 衡州刺史陽濟 擇連帥
之職言咲討麻姑之亂故三托

朱鳳 之 애喻
之亡 | 라

君不見瀟湘之山衡山高山巔朱鳳聲數數

그의 노봉湘회衡山에 노고 큰 드디 아니
하노다 린 그 텷 블근鳳의 소리 声數言, 드다

側身長顧求其曹翅垂口繁心甚勞

우려가
우려가

라도 라보아 그 무를 求하니 | 韶州도 라
고 이 비 어미 오모모 몰 繁하니 고 바하니 놋다니

懸百鳥在羅網黃雀最小猶難逃

其亡喻兵興之隙耳

小民이 因於 杜鵑也
거려니 능률 아래로 이 엿비니 가누니 黃雀

이 안작하고 뒤모하려 難이 헛스 言文다
라

願分竹實及蠻蠻盡使

鶴集相怒號 鶴集止惡鳥
○顧玄正 대여 품과 대엄이 둘

이 졸다 니다 鶴集로 하여
는 죄하니 우르게 하여 리아

杜鵑

西川有杜鵑東川無杜鵑涪萬無杜鵑雲安
有杜鵑

西川에 杜鵑이 고 東川엔 杜鵑이 없고
有杜鵑 淩萬엔 杜鵑이 없고 雲安엔 杜鵑이

我皆遊錦城結廬錦水邊有竹一頃

餘喬木上參天

錦城에 노라
錦水人고
불가으니 앗는 대호이

려이 남고 노 표남기 우
호로 하늘해 다 핫더라

杜鵑暮春至哀哀叫

그스 어여 셔우더라

我見常再拜

其間

杜鵑 | 暮春에 니르러 숨
여예 셔우더라

重是古帝魂

蜀人望帝死為杜鵑호니라
내보고 쌍네두번 꼬질호니이

生子百鳥巢者鳥不敢嗔仍

為餒其子禮若奉至尊

온새이 기의 삐이 둘
나하던 온새구리여

의기온하고 기즈로為하야 그부기

禮를 담금이나 품었지 않다

鴻爲及

羔羊有禮太古前行飛與跪乳識序又知恩

鴻鴈○竹飛而識序○古羔羊○像乳에必跪而知恩○이니라○鴻鴈과羔羊과○참옛

前보려禮○있느니行列○이니며仔려積聖
어거○次序를알여○在恩惠를아느니라○聖

賢古法則付與後世傳聖賢이넷法을後世

예보려주어傳○古○시
니君看禽鳥情猶解事杜鵑言可以人而不不

라○그의는새증상의쁘들도라
아○그의는새증상의쁘들도라
오하려杜鵑○부규을아느니라

今忽暮春

間值我病經年身病不能拜淚下如逝泉刑

은듯暮春人人이예내기病이하지나물만
나오이病이야能히절하고지몰하고눈물을흘

류물 쇠 맷 물矢

드사

하 노 라

杜鵑行

君不見昔日蜀天子化為杜鵑似老鳥

그 터
는 보

다 아 니 하 는 다 음 日 에 蜀 天 子 ト 變 化 守
하 야 杜 鵑 이 듯 외 늘 근 가 마 페 곤 도 다

巢 生 子 不 自 啄 群 鳥 至 今 為 噴 雛

는 이 기 세 보
려 삿 기 를 나

고 제 딱 어 기 디 몬 거 든 물 새 이 제 니
로 리 為 하 야 삿 기 를 어 기 누 伍 다

雖 同 君

臣 有 舊 禮 骨 肉 滴 眼 身 羈 孤

비 목 君 臣 의
리 신 이

곤 드 나 肉 이 누 대 그 두 치 앗 고
도 미 나 그 내 드 외 았 유품 도 다

業 工 窪 伏

深樹裏四月五月偏號呼

한국
한국
한국

스려 눈물바지로 이 헤느니其聲哀痛口流
四月五日에 그 장우로 왔다

血所訴何事常區區 그 소리를 하면서 그 아내
파를 흔리니니 하는데

爾豈惟殘始發憤羞帝羽
區區乎。勿也。

翻傷形愚
비엇이 편지로 약해 아비루 누에
았본다. 또 데크미아니리오자

출帝古야 시를 봇그리며
얼구리에 리을 늘 놋다 蒼天變化誰料得

萬事反覆何所無萬事反覆何所無豈憶當

殿群臣趨 프른하노이變化호를 놔야 라
리모萬事의 두려한후아여느고

대업스리오焦急事하두의원후미어느고대
접수리호어누殿을當한마지친群臣의趨
走는단이를
수구는리로

杜鵑行

古時杜宇稱望帝魂作杜鵑何微細옛시절
에杜宇
를_을望帝라일고여기서杜鵑跳枝窩葉樹
을_을는되나자못細细_{도다} 跳枝窩葉樹
木中捨佯警拔雌隨雄捨佯은疾飛負十日
○나_나捨佯警拔_{하나}야암_나이수_{하나}한_나간_나자_나毛
衣修黑貌憔悴衆鳥安肯相尊崇입고_나각자

大口乾垂血轉迫促似欲上訴於蒼穹

마비

고피드려여고장회보부니우호로하늘지한오취호는도다

蜀人聞之

皆起立至今數學傳遺風

蜀人사리미들고

제어드리고로치여리화기

遁風俗이傳하야오누다

知變化不可

窮豈思昔日居深宮嬪嬌左右如花紅

화이

다음입수를안리로소나랫나래기

言의

舍어든嬪嬌이좌右에불근곳그토물어느

리오랑하

義鵠行

陰崖有蒼鷹養子黑栢巔

어득 호비 레예 프

나뭇그늘에 앉는 니거든
나온 친지 놀다 白蛇登其巢吞噬恣朝飧

야미 그기 새울아 습히며 더立
려아 총어 구을고 강하니 라

雄飛遠求食

雌者鳴辛酸

수호소라 어리 바른求하니
노암히 우루울을피하니 라

力

強不可制黃口無半存

禽鳥之難 | 口吻이
암Yellow 치니 라 ○ 라야

이히 이제여可히 감에 두 몰하니 라
누름이 비우도 있다 몰하니 라 其父從西

歸翻身入長烟斯須領健鵠痛憤寄所宣

아

비서 사람 그로 브리와도 몬도 위여 간 빛
리로 드려 가 아니 한 데마 健壯玄鵠를 러브

려와설우며애완분斗上披孤影歎嗟來

움펄바룬보타니라

九天此는言鵠의 落來之狀하나니

하늘로취는脩鱗脫遠枝巨頸拆老拳

려모니라脩鱗脫遠枝巨頸拆老拳

蛇호고老拳는言鵠의 다고비느리면자

지예셔서사디나마마히늘군주어위

니며다高空得蹭蹬短草辭蜿蜒蹭蹬은失勢

나라高空得蹭蹬短草辭蜿蜒蹭蹬은失勢

준虚空에내蹭蹬호흡여드니折尾能一掉

이은프려구물어류풀마도다

飽腸已皆穿

것은부리로운能히한번뿐이

食腸已皆穿

나보르가여근애는는마다

를위디生雖滅衆雖死亦垂千年

로그여남자

기로도減吉 나주 기도 佐物情有報復快意貴
千 年 은드려 가리로 다 物情有報復快意貴

目前

萬物의 빛니 가포이 빛니 般를 快茲
이 空를 눈알 키워 호미 賢이니 각

實鷦鷯最惡難心炯然

이는 真實로 모 닌 사
어려 우를 倘리 救하 功成失所在用捨何其

손으 미 褒호니

言鵠一既獲蛇高不求報色而即飛去
贊也 卜니 라○ 功을 일우고 잇는다 몰랐도

소나 坐여 말오 미

近經濱水渭此事樵夫傳

조모 어디로 다 道間에 濱水人

이 를 다 모 랠사니 미나는 데라 騰蕭覺

素髮凜欲衝儒冠

古詩 예 慈髮이 上衝寇 1

빈
어
리
터
리
주
붓
이
야
섯
노
곳
가
를
다
달
오
물
아
로
타

人生許與分亦

在顧盼間

이니라 ○ 부름사로에 許與言 노

今義
可命
而道
以在

肝土行

을 디어 가리, 牡
을 激發 하노 라

呀鶴行

病鵠早飛俗眼醜每夜江邊宿衰柳

病志錄

아가는니俗人의 눈에 더러이 너기느니
암清
아다하고이를 큰 버드려서 차듯다

秋落日已側身過鴈飛鴉錯回首
中正六書

하마도 몸 기우 려다 나느 그 려
가마고 예와 모어 리를 도로 허보 같다 와 가는

紧

腦雄姿迷所向蹠翻稀毛不可壯

緊惡호

頭

호양스로 갈바를이 위하 노소니 싯

性

친느 태와 드문 러리 좌차 몬하 도다

強

神迷

復皂鵠前俊材早在蒼鷹上

精神을 고들고

과

귀도 라가 몰述失하 느니 俊傑호

良

才質을 알프른 애우 희잇더니라

風濤颶颶

寒山陰熊羆欲蟄龍蛇深念甫此時有一擲

失聲濺血非其心

비리 매을 죄리서 늘하 고

藏古

龕地

기피 들어 든다를 이 떠한번

더더 눈요울수 랑하 노니 소리를 일코 피를

하마고 예와 모어 리를 도로 허보 같다 와 가는

紧

紧

紧

但豆足그로다
미아나로다

王兵馬使二角鷹

悲臺蕭瑟石巖挺哀聲

龍운力
空切言

叔杼浩呼洶

高祖動切高大貌
1라叔杼亡不齊臭
1라淘은水聲이락이호진臺이하언言正

돌기

龍庭亡고호온것고리

中有萬里之

長江迴風隨日孤光動

已上四句는言夔峽
間風景을 야述角鷹

之所出하니라그가온터萬里人간하고이
잇는나희로리보리이히로리리히되리원

知才
位角鷹翻倒壯士臂將軍玉帳軒勇氣

將軍은 指王共馬也 | 라 ○ 僕자딘 애社士
인물하付두위잇느니 將軍人玉帳에 豈猛
호기運이軒 二鷹猛臘條徐陞目如愁胡視
昂弓도다

天地

이 봄 날은 그만 놀고 있던 그 옆에 앉아 있던 그녀의 모습을 떠나지 못했다.

누는사름하니되께 늘
좌우좌우를보니 듯도다
杉鶴竹兔不自惜核
虎野羊俱辟易
松鶴上黃冠青縷下常在林
樹下하니고竹兔는小如野兔

누는사름하니되께 늘
좌우좌우를보니 듯도다
杉鶴竹兔不自惜核
虎野羊俱辟易
松鶴上黃冠青縷下常在林
樹下하니고竹兔는
小如野兔

호니食竹葉이니라薛易은 므르는를시작
○炒鷄와竹免왜제도운잇기리몰호느느
니삿기병과미햇竿韓上鋒稜十二翻將軍

勇銳與之敵버려 두 힘 같느라 혼호열두를 두
aket 기 치 여 將軍 이 勇猛이야기

古과 달리 군을 將軍樹軒起安西
昆崙虞泉入

馬蹄

車 | 力熱을 비여 安西에 차니 라니

昆崙

裔과虞泉과 운마 三列 봉미니라

豈不與之齊

白羽는箭也 | 라 獵狼는 即師

軍敢夫

之氣似猿狼也 | 라 ○ 白羽箭으로

일즉세

猿狼의 고기를 차바어 그니 敢夫

虞下

翔雲 莖南人禹公이 將軍을 어드니 佐

臣惡鳥飛

啄金屋安得爾曹開其群驅出

六合鳥鸞爲分

惡鳥이啄金至은喻安史一陷

此는甫一敬得王將軍이야廳賊而使君子
人으로 分也 | 각이 모단새는라金屋을
디니니엇데네무를어더그새무를여려六
合에모라내조朴集對鸞과를노호전노

見王監兵馬使

臣說近山에有白黑二

鷹

니羅者 | 久取臣竟未能得다 | 王

이以為毛骨이有異他鷹中恐臘後春

生

이어寒飛遲暖연勁翮思秋之甚이

眇不可見

일朴請余賦詩二首다

雲飛至立盡清秋不惜奇毛恣遠遊

구루미
는 는 드

하미 玉이 산 푸드 야 몰고 그 올 허나 오 드 류
잇느니 금 異호 것 출 앗기 하아 놔한 애 머리
와느로 몬放 在野 只教心力破千人何事網
恣히 헤노다

羅求

의해이 쇠 쇠 오직 험여 사리 위심력으
로 할에 헤느니 자로 이개 구犯 호이 드

수이 乞가 놀그을
로求 헤느니 도
一生自獵知無敵百中爭

能耻下轔一生 대제 獵호 을 굳오 리습 노 굳
노디라 버려에느려 鵬礙 九天須却避免經
안조 몰붓 그리 놋도 鵬碍 九天須却避免經

三窟莫深憂

聲이 어니와 兔入三穴 헤니可

모로 배 도로 허 훈 헌디 어나 악 토 기는 새문
이니라 ○ 鵠 鳥 는 작노 둘구 허설서
이니라 ○ 鵠 鳥 는 작노 둘구 허설서

黑鷙不省人間有度海鯨從北極來

卷之三

正
하리로 소나 바위로
온 가족 心ই 노라

翻持風起紫塞玄冬樂夜宿陽臺
暮春長城
七日土色

이 예 紫塞外謂之紫塞라 는 말이 있고
고 예 上한 紫塞를 친 고 오니 하冬季에

陽臺對日虞羅自各虛施巧春鴈同歸必見

猜虞人이 그 무를 스스로 제거 곰窟의工
猜玄을 폐노소니 보리 그 려기와 玄晦가 면

만리사야취
萬里寒空愁
一日金眸玉不
로울보리라

萬里人 치운虛空에 오직호를 가리로
凡村 소니全 곤호는 과 王 고호바토 비상네

마련材贊

催宗文樹鵝柵

吾衰劫行邁旅次展崩迫
여는 낙녀 돈 뉴울
친노니니 그 뉘로

민국 맷病豆호를 봐온들기라傳亨
자고 윤한회 약속으로 호국역노각
자본

生成者隨母向百翮
가생자(가생자)로 브리나 이곳 노
가생자(가생자)로 브리나 이곳 노

니一百이向區制不禁喧呼山腰宅도라
히야가나다馬趣制不
禁喧呼山腰宅도라
도制제樂호물이그니 몸亡망리로
소나 및 허잇지의 셔우리나다課奴殺青竹
終日憎赤幘赤幘을雄鶴冠也이라
종율
리모도록불근머리가督籍盤案翻塞蹊伎
진들준의여호노락 踏籍盤案翻塞蹊伎
之隔이는 들기홀걸히위여길흘여돌사라
이蟹과寒과를불좌두위리고길흘마
가히여공주음牆東有隙地可以樹高柵남
초제하나다避熱時來歸問兒
여희원件히잇는니可히避熱時來歸問兒
노표本柵을세리로다 織籠曹其
所為跡적위론수어時로와여아織籠曹其

內令入不得擲

籠을 떼고 한 해 돋기 무리잇

제호야 하여 드려 시 러 용 빼

여나니 몬 희間可突過端距遠汚席

드몬 스

可

히해디 러나연 부으리와바

我寬蠻蠻遭彼

통과도로 끄글더 레 이리라

免孤貉厄

言籠柵은無間隙則은 蛙蠻不遭

鷄之喙이오 鷄亦免孤貉아

所害

나는개야에안나온어위기

호

여는여는과일회厄을免호리라

應宜

各長幼自此均勍敵

勍敵은閹鷄를니르니

당당이제여

금즈

라니와 죄으니 왜 앗당히 드외야 일

籠柵念

로브리센비면이 글모 드외리라

有修近身見損益

言以柵鷄之事로近譬人

身이연损益之理亦然

와니라○龍柵修理立물수 랑호니
도애갓자아損益을보리로다

明明領處

分一當剖析

言宗文이宜領吾이度分支야剖斷分析也、非以成其柵

이니라○불기괴결호몰아가

不昧風雨晨

부하니라○이하반도시剖析하라

離感憂惑

言弓形비오는새배도우루몰아

를더니라○其流即凡鳥其氣心匪石

言匪石은不失司

最也○그무론상변세나그氣運倚賴

言이홀마티이후디아니호니라倚賴

窮歲安撥煩去冰輝

言을골倚賴하니선히느

러운시고를僻여명계未似戶鄉翁拘留蓋
호운어름녹듯이니中

千百视线爲之居尸鄉山下야 養雞千餘
阡陌古니라 ○尸鄉人한아비자마 드니길

毫毛것끼 흥그
마나니하니라

縛雞行

小奴縛雞向市賣雞被縛慙相喧爭

조고앗
조이든

기운이야 져제 를 향 험야 푸로리 라위 늘 톤
기울리며 애도 끌나벼사르울여 삐疵는다

中厭雞食蟲蟻不知雞賣還遭烹겁안 諸
여기운기울어

기와개야 미와어 구물아 천고동기풀여
도로허슬모 몰앗을고돌아디 몰하라

雞於人何厚薄吾叱奴人解其縛별더지와
돌리해사고

이게어느동정오며열무리오내雞蟲得失
종을구송하야모운거슬글우라雞蟲得失
其得失이無窮也 | 라 ○ 돋과벌에得失며
失호미모총지기업느니치운고로내누늘
僭아보고잇자

雞

紀德名標五初鳴度必三
也 | 首戴冠이文
武也 | 오見敵而聞 | 勇也 | 豪得食相呼 |
義也 | 고鳴不失時 | 信也 | 라 ○ 德을紀
每호매일후를다소가지론標한느니처殊
감울재기度數를반도기세번古느니라殊

方聽有異失次曉無慙

夔峽이特甫의故鄉
故里稱殊方이란다

나로하해와두루이다니
나로다니일고제배운그鼻이다
입도다니

問俗人情

似充庵爾輩堪

言可充危厨之饑也
1라
風俗을무루나
재로이된다

그트니로어베예도모디
회무를하양즉하마다

氣交亭育際巫峽

漏司南

亭育도造化를나리다
○氣運이亭
育人이예 찾것는나마
巫峽八漏刻

나마을남의
우우자다

歸鷺

不獨避霜雪其如儕侶稀

玄文什리자기과
玄文什리자기과
를避한데아니라

그 버디 드므로 四時無失序 八月自知歸時
매 엇 데 헤 리오 예 菩序를 알 티 아니 헤 야
八月에 제 가 몰아 놓 티 예 菩序를 알 티 아니 헤 야

還識櫻

言來春에 又至也 | 과 ○ 보드비체엇
데 카르 보다 아 니 헤 리오 여 러 찾기

도로 허조 가 故巢尙未毀會傍主人飛
근 골 아 늦 디 故巢尙未毀會傍主人飛

萬一 예 허 미 아 니 헤 면 모
로 매 주 人 을 바 라 는 리 라

燕子來

舟中作

湖南為客動經春 燕子喚泥兩度新 湖南에
한 번 더 봄이 온다니

도의 야 신 다 마 다 보 몰 디 내요 니
제 비 홀 굳으 려 두 배 늘 새롭 도 니 舊入故園

嘗識主如今社日遠看人

네故園에 드러밀
후님자홍아더니

이列社日에 머리
마사고온보느다

可憐處處巢居室何異飄

飄託此身

言甫之託身於此
一與燕之來巢
로無異也 | 라○可
하늘프다은

마다사는지비와깃하고는나
마이모문브려함과어느다리로
히이모문브려함과어느다리로

飄飄暫語舟檣

還起去穿花落水益霑巾

걸고간랫대에 쉬말
하고도로니려가

고졸들위으례디어는더우
노모를수巾에자지노락

雙燕

旅食驚雙燕嚙泥入此堂

밥어구에두쳐비
나그때는와야서

의 고 모 려 이 지 뵈 드 應 同 避 燥 濕 且 復 過 焱
격 오 몰 놀 라 노 라
涼 당 당 이 사 르 미 우 로 뒤 주 드 避 穀 이 곤 養
子 風 菖 蔭 來 時 道 路 長 風 菖 入 그 위 악 삿 기
기 도 今 秋 天 地 在 吾 亦 離 殊 方 言 甫 | 當 納
다 而 歸 故 鄉 亦 如 燕 之 歸 也 | 야 ○ 이 구 은
히 하 는 차 사 웃 스 이 예 이 치 면 나 도 伍 자 은
개 흐 냥 그 리
와 도 리 각

鸚鵡

鸚鵡 含 愁 思 聰 明 憶 別 離 正 雀 이 것 누 나 憶
— 鶯 — 시 름 드 라

明弓 야재하니 허리에
여울수를 향한 듯하니 翠松潭短盡紅嘴漫多
知弓 봄 기자 다련어 업스니를 未有開籠日
知弓 부리 속 멀엄시 해아 낫다
空殘宿舊枝 簾을 열나리 앗디아니 토소니
昔世人憐復損何用羽毛奇 世였자니 미소
야니 허물坐하오니 이래서 異其異호니 허물
최기 舊主 몸을 坐하오니 이래서 異其異호니 허물
子規 二子規啼聲 雨露 深夜
峽裏雲安縣江棲翼飛齊 涼人 안햇 雲安人
峽裏雲安縣江棲翼飛齊 涼人 안햇 雲安人
則는 디세고兩邊山水合終日子規啼에 및
주제도다

남기모 닷느니 나리 모 眇眇 春風見 蒲蒲夜
도록子規 | 우느다

色悽아 蒲蕭하 봄날은 매보리로 소客愁那

聽此故作傍人低 들판에 애시르에 엇데이를
터느주느다

문짓느다

百舌

百舌來何處重重祗報春

百舌새는 어드려
세오니 오여러 봄

우러오직보知音兼象語整翻豈多身

소리
물알의느다

서여러가짓말로 물兼호느니 놀끼를 고
묘모엇데모 물건히너가마아니리오

花

密藏難見枝高聽轉新

고자 칙칙 허니 깔마

보미 어령 고자 지노

푸나 든지 그을 때도 다

과时节如發口君側有讒人

百舌

韶夏止 허니 니월令에 산禮後에 反舌이 有

聰人아 在側이라 허니 니월

時節이 미

나이 르 爲一 대 소리로 내연 님금

허니 허니 그릴사로 미잇

허니 허니 라

白鶲行

君不見黃鸝高於五尺童化爲白鶲似老翁

此葛 은甫 一自喻之作 이니 上句는 言少時

言고 下句는 言衰老 허니 니월 그의 노보지 아

니 솔로는 다 黃鸝 이래 자만한 아히 죄예 놀려

내 演化 言자 한 올 하듯 외나 는 운한 아래 그

도
다故雖遺穂已蕩盡天寒歲暮波濤中

몇이

기른여미사기 시우 蕩盡 하니하늘 하리 鱗介

침고 점글어 는 하나 가온 더잇도 다 鮮介

腥膻素不食終日忍飢西復東

此는 比 不食

不義之

禄 하

다 비 술 와 당 아리 가진 비 뉘 호고 기 는 본

지역 자아 나 하 느 나 나 리 모 드 로 주류 물 太

마西로가

락 在

東二로묘

夫 나

曾門鷄鷌亦蹭蹬聞道如今

猶避風

鷄鷌 는 海鳥

이 나 避 風 하 야 止於 曾

才 避 國 入 東 門 하 나 라 하 노 比 蓮 亂 하 다

을 드 로 나 이 재 모 하 려 부 고 를 蓮 하 矣 다

歸鴈二首

萬里衡陽鴈今年又北歸

萬里人衡陽 엇 그 려기 들판 하伍处 으

短中雙雙瞻客上一一背人飛

雙雙高 나 그 별보 고 늘 애

가고 심나 기사로 물구나 끝에 가 날다雲裏相呼疾沙邊自宿

비도 라는 드가 미드로 미련히 니

稀

구름소래서르브로 미련히 니

繁書無浪

語愁寂故山徵

繁書는用蘇武의 離是書事

어른 속절업는아리업스니故跡와 했

高

사리세용도와 엇기니하하고

欲雪違胡地先花別楚雲

누나오고적거늘
꽃나물한데로하고

더니그치라와온춰쳤
서구루물여희 같다却過清渭影高起洞

庭群

도로밀고
渭水로
나가는 그
그리로

나

北塞

소니노파
洞庭에
나가는
무리로

나

北塞

하늘에
나는
마리로

나

北塞

하늘에
나는
마리로

나

聞

화를 들려
는 데
리 몇
는 기
처여
행

나

聞

列아 그즈니
드 럼
직 미아
나 해도
나

歸鴈

聞道

今春鴈南歸
自廣州

나

廣州로

부터로
나온
을
見花辭漲海

나

遲雪到羅

로
나

浮

漲海
남방
나
고
줄
보
고
涨海
를
여
나

孤雲遊兮羅是物
開兵氣何時免客愁
浮雲若此年年霜露
萬萬湖秋五湖之水

라

孤鴈

孤鴈不飲啄飛鳴聲念群
唯我獨知我心誰憐一片影相失萬
里哉我心念君君不知我誰憐一片影相失萬
里雲一片人我萬重人我望盡

似猶見哀多如更聞

라오에다엄소더오
하려보는는이하고술흔

小
소리하니마시野外鴉無毛緒鳴噪自紛紛

들눈도이도다
라가아과는쓰디업스나우
러수우미제어즈립도다우

歸鴈

春來萬里客亂空樂年歸

보미맺는万里옛
나노내는亂이웃

道
도라가려뇨 腸斷江城鴈高高正北飛

도로이느하여예
에그려기노파정하趾우
로느라가매어를듯노라

官池春鴈二首

自古稀梁多不足至今鷓鴣亂為群네로보
希梁多不足今鷄鶯亂為群

이해 足디 온古니 이재너로리 몽
동과 쥐야 어즈리 이 물호 앗도다

且休悵望

看春水更恐歸飛隔暮雲슬하만 를보니 말라느라

가나릿구루에즈음

春
暮

青春欲盡急還鄉紫塞寧論向有霜프른보
마다아

가어늘날리本鄉으로도라 가느니 를군 그
애요하려서리이슬물었데 論하리오

趨在雲天終不遠力微矰繳絕須防는개구

는해여속이 只太에 어디 아니호 리로 소니
히미적그니이 줄사 를고 창모로매 악즈르라

舟前小鵝兒

鵝兒黃似酒對酒愛新鵝
을 韶 父 기 누 러 호
對 赤 作 作 言 引 頸 噴 船 遍 無 行 亂 眼 多
를 소 라 헤 노 라 引 니 와 우 몬 익 이 헤 누 니 모
列 이 吉 什 누 티 어 즈 라 우 이 하 도 니 翱
開 遭 宿 雨 力 小 困 滄 波
니 음 레 莺 客 散 屢 城 暮 孤 狸 奈 若 何
困 헤 옛 도 니 客 散 屢 城 暮 孤 狸 奈 若 何
層 屢 仁 城 入 ト 丕 히 어
술 言 비 개 앗 ॲ 헤 려 뒤

得房公池鵝 房 琦 乃 高 漢 州 刺 史 也

房相西亭鵝一群眠沙之浦白於雲

房相의
西人魄

亭子옛 올리 한 무리 여 물에 여 朴 다 을
여 大 을 떠 나 구 구 뿐 미 각 자 히 하 도 다 中

鳳凰

池上應回首為報籠隨王右軍

上句 言房
珪이 在鳳池

而回望此鵝也

1 朴王羲之

為山陰道士

2 此太

言南

亞寫通經言正籠鵝而去

3 此去

此太

言南

欲效右軍也

1 朴鳳凰

2 吳

3 王右軍

을조차가나

大

小

大

鴻鵠

故使籠寬纖須知勤損毛

부려하고 빠져나온다

에리 허야 유물 看雲莫悵望失水任呼號
모로 매아 도다 구루 물 보고 슬하니 라 돈말라 물를 일흘식 불려 우로 물任 意로 한 늦다 六翮曾
經翦孤飛率未高여矢丈 늘개지 치 일즉부
온 늦다 피且無鷹隼慮留啼莫辭勞애를
호기 업스란 터어드러이
수다 又보 몰마리 알라

花鴨

花鴨無泥滓皆前每緩行
업스나 풍물무든 터
피션 每常告회 羽毛知獨立黑白太分明
야돈니 누나 獨立

은言羽先一異於衆鳥也。一각。○지치獨立
하고 틈아노니 가묘여 하요 미녀 무分明。이
도不覺群心妬休牽衆眼驚。을고。○애세오
하。나。을누녁놀라。稻梁宿汝在作意莫先鳴
宜。이. 하다. 알라。稻梁宿汝在作意莫先鳴
稻梁。로. 너. 아. 카. 미. 앗. 나. 텐. 들
나. 르. 와. 나. 누. 아. 카. 몬. 켜. 우. 아. 알. 카

鷓

江浦寒鹺戲無他亦自饒。自饒。七。自得之意
들호로여가노는. 나. 터. 는. 却思翻玉羽隨意
일. 업. 시. 佐. 自. 饒. 치. 도. 치. 点春笛。도. 토. 허. 玉. 드. 玉. 치. 출. 두. 유. 터. 고. 치. 소
點春笛。도. 토. 허. 玉. 드. 玉. 치. 출. 두. 유. 터. 고. 치. 소

雪暗還須落風生一任

風 누나여 듭해오
도문도로 모로

唯北遙鼓虹日月高天柱

만우리 담해 우희 몬고

上清影自蕭蕭

옛무리 담해 우희 몬고

歎古詩八首

律詩七首

遺興二首

天用莫如龍有時繁扶桑

하늘 놀라순룡
거시업건마

雲扶桑에 일頓轉轄海徒湧神人身更長嗟

제기잇니 놀라頓轉轄
마음과 엿생명

龍遲回り야 쥬비따로리 한갓 불과 엿생명

도소니 신人人이 몸이 아기나니 이도다

性命

苟不存英雄徒自強苟不存正七。以制자찌
로두디온 연英雄도 한갓 吞聲勿復者진실
스식로 啓위들 傳나니라 宰意茫茫하늘하늘 故마지막 아우라 하늘하늘 떠도를모를 거시
라

地用莫如馬無良複誰記件 헛쓰 이 몬 안고
丘리아니 힘면 佐此目千里鳴追風可君意
馱記錄드리오 이나래千里를 나우 記리 도中君者 증 這種
態與駕駘異漢元狩三年馬生渥洼水 中수 也
態與駕駘異나우 그 우渥洼잇비 屋보

라니。列精舍。不雜踐齒間。逍遙有能事。首
中。吳。古。已。니。라니。不雜踐齒間。逍遙有能事。
此
止。精。君。子。已。다。太。而。여。하。止。民。今。이。예。貞
止。精。君。子。已。다。太。而。여。하。止。民。今。이。예。貞
止。精。君。子。已。다。太。而。여。하。止。民。今。이。예。貞
止。精。君。子。已。다。太。而。여。하。止。民。今。이。예。貞

라니

沙苑行

君不見左輔白沙如白水繚以周墻百餘里
그(이)는 봉우리 아니(하). 놀라(左輔)의 흰 모래사장은
로(到) 白水縣에 中(中) 리(里) 둘었는(임). 一(一)百(百)餘
里(里) 둘(을) 놀라(左) 龍媒(龍媒)皆(皆)是(是) 謹(謹)註(註)種(種)汗(汗)血(血)今(今)稱(稱)獻(獻)於
此(此) 龍媒(龍媒)는(는) 냇(냇)이(이) 謹(謹)註(註) 옛(옛) 봉우리(봉우리)에(에) 献(헌)내(내)는(는) 范(范)
此(此) 예(예) 나(나)가(가) 봉우리(봉우리)에(에) 献(헌)내(내)는(는) 范(范)

中駢牝三千匹

馬

七尺

豊草青青

寒不死

曰駢

一尺

○苑中
lett. 驢牝 이 3千匹 이로土니 丘庭食

리 퍼 려 향

非 카 위 도

죽 니 아

나 헤 늦

나 헤 낮

나 헤 낮

나 헤 낮

나 헤 낮

나 헤 낮

나 헤 낮

나 헤 낮

나 헤 낮

之豪健西域無每歲攻駒冠邊鄙

이고

豪健

西域

에도 날도 소니 헤 아다 질드 룬 니

人門

을

王有虎臣

司苑門入門天既皆雲屯

怡苑人門

을

아 라인 누니 문의 드려 보니 하겠 마 쟁霸

霸

一

骨獨當御春秋二時歸至尊

驃騎人호

氣骨

云作 몽當 향 야 봄과 마을

至尊内外馬盈億

弓矢

와 두 뻐 님

吉昭

와 두 뻐 님

伏櫪在坰空大存

此言内外爲卜皆不如
謂驕也

| 라 ○

○

億에 太 千 마는 이르히에 言逸群絕
을 때 懈해 이 산 爲 절 암시기 있도 다

逸群絕

足信殊傑倜儻權奇難具論

倜儻은 不羈負

行也 | 라 ○ 운리超達 言 아 绶 率 바라진
실로殊異 言 미 偕 奇 言 노 소나 偕 奇 言 미 機
奇호 몽다닐 오 翳 繢 塵 韋咸奔突往往坡陀
미어렵도 다

縱超越

堤也 即堆土 |

○

言堯中之陵阜高
平處는可以縱馬之奔突이 오坡陀不

두들근을 드로 운 까고 모리모리에 두두록
한전건네며 유품 角壯翻同麋鹿遊淳深簸
放纖하

鴻毛鼈窟

健壯호坐大坐이도로허사소이
노롭파고드니가픈모례여여여

墨弓弓中泉出匡魚長比人丹砂作尾黃金

해리矢中泉出匡魚長比人丹砂作尾黃金
鱗砂도리여나는콘고기기리사로그든니丹

豈知異物同精氣雖未成龍亦有神須漢云
其浴之

時에感龍精氣兮야往往에與龍交也丨라
○다로物아로다精氣는고호정도여느길

리오비록龍이드와여더문하
여도도神寺立마잇도다

瘦馬行

東郊瘦馬使我傷骨骼肆兀如堵牆東臍
東臍

리 날로 히여. 윤제 치니. 날
도 날. 암돌이 쇠. 근도 다. 鮑之欲動轉
歌側. 此豈有意. 仍勝驥. 미랫거늘. 위우. 죄. 헤
한. 노.些. 미. 이. 시. 리. 오. 細. 看. 六. 印. 帶. 官. 字. 衆. 道
三. 軍. 遺. 路. 傍. 山. 常. 可. 字. 銀. 帶. 치. 앗. 헤. 니. 모. 다
일. 우. 뒤. 三. 軍. 이. 길. 마. 皮. 乾. 剃. 落. 雜. 泥. 淚. 毛. 暗
아. 亂. 리. 다. 亂. 헤. 다
霜條連雪霜. 가지. 온. 하. 뜬. 드. 러. 흐. 기. 엇. 헷. 헷. 고.
箭. 例. 中. 去. 落. 本. 波. 逐. 餘. 寇. 辟. 驪. 不. 潢. 不. 得. 將
엇. 도. 예. 내. 去. 落. 本. 波. 逐. 餘. 寇. 辟. 驪. 不. 潢. 不. 得. 將
나. 건. 히. 바. 留. 결. 듯. 드. 시. 기. 흥. 盜. 賊. 을. 疎. 헤. 지
기. 驛. 驛. 馬. 1. 누. 숙. 디. 아. 누. 흥. 야. 서. 켜. 품. 마. 저

가니문 士卒多騎內厩馬惆悵恐是病乘
마니라

黃 来青은 神馬名이 죽이 士卒이 내厩잇으
로니해 든다니 痘이 痘이 痘이 痘이 痘이

야술當時壓塊誤一蹶委棄非汝能周防
노래

거죽 우적 니나돈우흐던 거시와 오효변
더니니부료 몬네능히 푸주마 니몽흐리자
見人慘淡若哀訴失主錯莫無晶光
사랑을 보고 悅

淚 涕 슬피하노이하니 남자론
밀로 어그로 치비치업 도다

天寒遠放鴈

爲伴日暮不收烏啄瘡하늘하치운재머리
호았도소니나리재물어놓거두다
아니하니가마리한 죄를 닦으먹는다 誰家且

養願終惠更試明年春草長
뉘자비 付任植
願立可恩惠
로부 慈惠
여기 仁植
리갈여든가시야 諸事
리복 仁植

• 驥馬行

鄧公馬癖人共知初得花駥大宛種
鄧公이
호상 痛_을사_를 미_니야_니니_니처_어
駒_마 聰_을어_드 니_니大_완 차_로니_니夙昔傳聞
思一見牽來左右神皆竦_여傳聞_{하고}有_면
 니_니오_오이_잇여_우니_니左_우에_사雄姿逸態何_峻
니_니아_아精_신을_을中_간神_마動_드니_니中_간雄姿逸態何_峻
峯顧影驕嘶自矜寵_대崑崙_은高_상니_니라_니雄_자
峯顧影驕嘶自矜寵_대崑崙_은高_상니_니라_니雄_자

不外 不莫 노平니그리 예를도 라보고
驕慢하 우러히 荣寵호 은영 誇하느다 隅目
青熒夾鏡懸肉駿碨砾連錢動肉駿은 肉이
碨然也 丨 라連錢은 馬毛丈 丨 如巍形而連
也 丨 라 〇 모출 누나이니우루를 봐니
는 듯 하고 肉駿 丨 어흘 오니운도니
마음도니 놀랐도니 朝來少試華軒下未
覺千金滿高價 아추미잇는 軒檻아래타가
지가로니 千金 丨 모운바다
고두 호물아니 赤汗微生白雪毛銀鞍却覆
온느리로다

香羅帕 불근 侍이한눈 區 有리에 죄기나
누나 銀사 三叶개도로者羅로 망고
론帕를 두 項家舊物公能取天廡真龍此其
更도다

亞

甫自註太常采鷗以勑賜馬一匹號李

物

夢公發而有之

矣

公卿

之

物

을

그대

龍

十

正

그

니

로

다

畫

洗須

騰涇謂深夕趨可刷幽并夜

夜

至以

川

水

水人

人

人

人

人

州并州

人

人

人

人

良驥老始成

此馬

數年

人更驚

耳

駒

年

人

人

人

疾

牛

牛

牛

牛

不與八駿俱

先鳴

不與八駿俱

先鳴

先鳴

於鳥不與八駿俱

先鳴

不與八駿俱

先鳴

先鳴

不與八駿俱

先鳴

不與八駿俱

先鳴

先鳴

不與八駿俱

先鳴

不與八駿俱

先鳴

不與八駿俱

時俗造次

那得致雲霧晦冥方降精

月精이降而生萬

物

霧

이에 엿더니라

時俗

에 이르러 금날의리로

霧

로 精氣가 드리느니라

近聞下詔宣都邑

近間에

肯使麒麟

地上行

近聞

로 驅

高都護忽馬行

安西都護胡青驥聲價歎然來向東

言驥馬

於西
汗東來長安也

1라

安西都護

1本出

車

弓

馬

1소리

1마

1은

1드시

1을

1이

1中此馬臨陣人無敵與人一心成大功

이오리戰陣을 聽하야도 래를 오라 업스니
사랑과 中又는 이오리야 큰 功을 일우
도功成惠養隨所致飄飄遠自流沙至功을
고恩惠로 사바다 利도 노디조처고 雄姿未
나粗細하마리 沙로 브리오도 다雄姿未
受伏檻恩猛氣猶思戰場利雄壯立양不는
肖恩惠를 드리아니 허리로 소니 위온 氣運
온오니 려戰場에 놀자 이도 놀을 소랑 허矢
手腕促蹄高如踏鐵交河榮跡層冰裂 밧모
비고 구비노 파쇠를 봄는 듯하니 交河에 옛
마늘層層원 어르물 물과 떠해 복리 디도
五色散作雲滿身萬里方看汗流血 다소가

호러 구루 물가 어모 매고도 헤니 萬里 가
매로 야 헤로 대 몰피 흑류 물보리로 다

長

安壯兒不敢騎走過掣電傾城失長安健

失健失

도구 티여 드니 몬 헤니 마리 티니 번개를
리나 드로 몰城中 헤니 가을에 모다 아누다

青絲絡頭為君老何由却出橫門道

橫音운

橫門은 長安城北門이라 言馬才老在於戰
陣

不若出橫門可以致功也

一라

垂る 살로 머리 몰리 야 그 데를為高야 선을
누나 어느 한 이로도 王主 橫門人 갈하로 나가

오리

李鄆縣丈人胡馬行

丈人駿馬名胡驅
前年避胡過金牛
迴鞭却走見天子
朝散漢水暮雲霧

駿馬는 일 후미 되 驅馬나니 前年에 되 路로 走여

汗야 金牛를 디 나이 가 쐐 路를 돌아 王도 地로 名여

子를 與와 보보 오나 아아 太다 漢水리 自기 矜矜 胡하 驅기

絕代여 乘出나 斗人나 萬人나 愛나 一나 代나 言나 許나 千入나 萬人나 一나 聞나 說나 盡나 憲나 難나

人나 舊나 舊나 千入나 萬人나 一나 聞나 說나 盡나 憲나 難나

材轉益愁向驚駘輩전 懸難材는 如같 劍의 的의

材轉益愁向驚駘輩전 盧나 蹤過檻나 漢한 由야 免면

劉表之追之類나 言나 聞나 胡하 驅하 正정 自자

傷상 所乘이 皆예 驅駘하 也다 ○ 어려운 故하

노村 賓 을 다니 르 며 늘 玄 邊 듣고 더 頭 上 銳
우 駕 驅 무 를 쏘 헤 야 시 품 하 노 라 | 頭 上 銳
耳 批 秋 竹 脚 下 高 蹄 削 寒 玉 | 어 리 우 헤 는 가
轡 머 힌 헛 고 허 토 헤 렛 노 판始 知 神 龍 別 有
種 不 比 俗 馬 空 多 肉 | 몬 비 주 쟁 헤 소니 쌍 헤
리 헤 이 고 기 향 그 洛 陽 大 道 | 時 再 清 累 曰 喜
得 俱 東 行 | 時 再 清 是 謂 己 教 復 東 京 也 | 각
제 는 여 려 나 를 시 려 곰 헤 鳳 憶 龍 驚 者 未 易 読
側 身 注 目 長 風 生 | 凤 외 자 솜 마 쟁 미 鶴 외 칠
기 혼 헤 볼 수 이 아 라 보 더

온 헤리로 노니 모온 기우려 누
돌 쌔아 보니 간부는 미우矢의

惜別行送劉僕射判官

聞道南行市駿馬不限匹數軍中須_{南녀그}
馬_를 사_는 다니_로 거_늘 드로_니 天數_를 그_裏
지_아 니_하 야_軍 中_에 单_리 라_須 求_하 矢_中
陽_幕 府天下異_主 將儉省憂難虞_{梁公} 이_라
○_渠 楊人_幕 府₁ 天下_에 中_로 낙_우 道_將 鮑_仲
○₁ 儉省_하 1_하
抵_拒 壯_健 勝_鐵 甲_豈 因_格 關_求 龍_駒 健_고 1_하
生_甲 이_하 1_하 1_하 1_하 1_하 1_하 1_하 1_하 1_하 1_하
因_亨 1_하 1_하 1_하 1_하 1_하 1_하 1_하 1_하 1_하 1_하

北自反胡騏驛蕩盡一延無

ナリメ 西北에
反호 모로보터

駿驛이 다 염사
延伸도 업스 나리타 一龍媒真種在帝都子孫未

落西南隅

龍媒在良馬
人叫志帝都애 이다
中子孫이

南人도 허듯이
아니고 나라 向非戎事備征伐君肯幸苦

越江湖

萬一兵戎入
이리사호 배
備用우나
이리사호 배
辛苦로이

江湖면 그
여호이
이리사호 배
辛苦로이

江湖唇弓
나리오

江湖凡馬多顚頷衣冠往往乘蹇驢

江驢湖
나리오

作。只
애 드리

江驢湖
나리오

衣冠亨
애 드리

亨사리
나리타

梁公富
애 드리

富貴
애 드리

貴於身疎號令明白人安居

渠公富
애 드리

누니號今온물기호서사俸錢時散士子盡
근디便安하사누니라府庫不為驕豪虛俸祿옛도한時로士子
上驕慢하더豪奢立문為하以茲報主寸心
야비우돌아니한누니라赤氣却西戎迴吐狄
일로베남그문감습는
西戎을리조太여吐狄羅網群馬籍馬多
울쳤도각자제하矢中氣在驅除出金帛
로야울그을로마려잡듯이리하
니意氣益賊을모라더러부료劉倭奉使光
매아실신金帛온내우사矢中劉倭奉使光
推擇滔滔才略滄溟寘劉倭이보리여우매고

조와 謀略 으마니 杜陵老翁 秋繫船扶病相
리아 조 브 리로나 杜陵 老翁 아비마 은하마 툴
識長沙驛 杜陵에 늦은 날에 한아비마 은하마 툴
驛에 와서 오병이 앓고 브리 들어서 長沙へ
트아 노 라 強梳 白髮 提胡盧手 煙菊花路傍
搞胡盧 는 酒器 라 고 들판에 머리를 빗고
搞胡盧 를 잡고 소느 를 菊花를 끌고 애련을
無言 九州兵幸 浩茫茫 三歎聚散自臨重陽
마울 허兵革이 해아으 라 헤니 모나이 시여
흐리니 몰리번 헤드는 헤고 重陽을 謄히 헤여
라當杯對客 忽涕淚不覺老夫神內傷 老夫
1라 ○ 酒杯를 당하고 소는 对하고 야 付哉으
를 죠도니 는 고 노 라 모 미는 헤고 付哉으

누이아디
온다. 낫다.

秦州雜詩一首

南使宜天馬由來萬正強南使在地名이니
此篇是車賦天馬 이니라 ○ 南使에
天馬 이 由來 로 萬正 이 古 도 다 浮雲

車陣沒秋草徧山長堅구 두 리 陣 에 니 어 때

道자 가 렸 聞 說 真 龍種 仍 殘 老 驕 驕 眞 寶 人 寵

리 어 는 드 로 나 자 즈 로 는 衰 萎 委 갓 도 中 哀 嗚 思 戰 鬪 立

向蒼蒼술 피 우 려 여 사 豆 豆 노 수 란 六 야 야
向蒼蒼술 피 우 려 여 사 豆 豆 노 수 란 六 야 야

王腕

驃
王陵節度使
衛公馬下

開說荆南馬尚書

王腕驃
荆南人也

王腕驃
王腕驃

頓驂飄赤汗
跕躅

虜三年八乾坤

一戰收

立四年

一舉鞭如有問

故作

猶他游

見前註

言衛公之乘此馬也必來

追鼎者

一馬上

無所乘

而

高

也

也

也

也

房兵曹胡馬

胡馬大宛名
鋒稜瘦骨成
高되 모 마 토 이 칸
예 이 렛 도 다
竹批雙耳峻
風入四蹄驅
한 굿 호 두 귀 높 고 나 루 미 드 렛
노 도 호 네 바 리 가 비 암 도 다
所向無空闊

真堪託死生
이 노 가 논 되 몬 득 다 다 라 갈 식
이 노 되 둘 두 면 死 生 을 免 하 리 라 한 논 아 리
라 ○ 하 히 야 가 논 아 래 비 여 어 한 제 업 스 니

真寶로 사 리 이 死 生 驍 騰 有 如 此
운 브 령 작 소 도 다
行 행 하 로 에 어 로 벳 기 비 리 로 다

病

乘爾亦已久天寒關塞深

在秦州作이라○
비홀리마

고라니하늘하침고塵中老盡力歲晚病傷
關塞기로 속에로다

毛骨豈

드를소내 늙도록려울다오게 두
나歲晚에 病흔서우 몸슬느라

殊衆馴良猶至今

다루리와세아잇데오도개
리 2월드리豆호로

도히려기재
너도도나

物微意不淺感動一沉吟

물이
여

고맛나시나些디기풀서
한번가파기푸물위노
라

鹿

鹿音几니大麋也 | 라

永與清溪別象將玉饌俱
中又여희니 가지
中가도고立자반야無才逐仙隱不敢恨庖
호대芋을니 벗도中厨人
厨九翠隱翁이興白庵로同隱하고라○仙
디베드로 몽부 웅亂世軒全物微聲及禍樞
디아를다니라 『聞鳴聲而疏取也』 | 라 ○ 악挫러운세에
物도온갖 두물가비야마나리나리고
소리禍樞衣冠兼盜賊號聲用斯須食財
에잇도다衣冠亡고盜賊을 豈지 야오
모餮은食拿 | 라 ○ 衣冠亡고 盜賊을 豈지
이 먹는 음식을 먹는다

猿

袁袁啼虛壁蕭蕭掛冷枝

袁袁江與娟娟江
同亨ニ聲長之良

不免隱見爾

女知現之機也

○一作

如知隱

是子

免티 몬

希希

憤智元從

衆全生滅用奇

匹수기본히록무를

하고

莫止前林騰每及父子莫相離

莫止前林騰每及父子莫相離

莫止前林騰每及父子莫相離

莫止前林騰每及父子莫相離

莫止前林騰每及父子莫相離

從人覓小胡孫許守

莫止前林騰每及父子莫相離

莫止前林騰每及父子莫相離

人說南州路山猿樹樹懸

사로미날오더
州人咸海외햇나

巴斗莫叶斗₁舉家聞若駭為寄小女拳胡

잇다

다

多樣類₁小者為貴₂니라○지비다를

고눌라노모₁하₂니₁적고₂여주₁이₂두₁니₂를

為₁하야₂보₁頑₂西愁₁胡面初調見馬鞭₂시름₁되₂우

터보₁비₂라₁頑₂西愁₁胡面初調見馬鞭₂시름₁되₂우

고도₁을₂이라₁우₂노₁리₂자₁점₂질₁許₂求₁聰慧者₂童

드₁두₂도₁을₂체₁을₂비₁을₂나₁리₂자₁점₂질₁許₂求₁聰慧者₂童

稚₁撫₂應₁顛₂辱₁希₂巴₁斗₂연₁다₂이₁업₂조₁드₂리₁로₂

다

促緘

促緘甚微細哀音何動人마비
방이甚悲痛고
픈소리工不 오사草根吟不穩牀下夜相親
루온感動하나니
풀불을취에설이푸미 편티아니 훈식
平牀十載바위시르親近하오니다
無淚故妻難又晨
오란다 그내시러공능드
리아랫구지분세
배론마친사라悲絲與惡管感激異天真
경
습이여령도부
이與促緘의感人事로不同也 1라○술픈
거문고악부모부로여하사리온感歌제호
의하
것과다
도다
性잇

焚火

幸因腐草出
敢近大陽飛

幸히 쇠근 고를 때
아이 날개니 구리

才未足臨書卷時能點客衣

臆書
권은

用車輶의 紙筆照書事
하니다 ○ 是히 書卷엔

臨하니 물하니 리오
時로能하나 그네 오세버

隨風蕩漫小帶兩傍林微

부드러운 몸조차
帐에 스즈침차

策高卑微微
를바라 微微하도다

十月清霜重
風飄零何處

十
月에 몬근서리하니
歸는 물여 어드려로
갈고

見焚火

巫山秋夜熒火飛簾疎巧入坐人衣

巫山人
가을바

마반드는나바리드온뒤로工
巧하리사구마그네한느다

忽驚屋裏

琴書吟復亂舊前星宿稀

집안햇거문고斗
書冊비서늘호문

은듯놀라고住점기술알피이
즈리우니여리드온듯도나

却繞井欄添

箇箇偶經花葉弄輝輝

도로끼우금欄干대
버무려거나끼리고

고偶然하고준디나나
빛나는하늘이높다

滄江白髮愁看來

歲如今歸未歸

滄江애와선희리싸시름
하야타를보느나오노히어

베도라갈까

魚律詩二首

黃魚

日見巴東峽黃魚出浪新
날마다 바동人峽
물보니 黃魚 | 익

터레나새脂膏無飼大長大不容身
多也 | 라 長大 늘大者 | 數百斤이라 ○ 기
로물가히나르리더구물龜
其言其
蒸飼大

道濁容納하筒筩相沿久風雷肯為神
다몬하 낫다筒筩○도자보 몬서리沿龜
魚器也 | 라 ○ 筒筩○도자보 몬서리沿龜
호이오 라니모름과우리여예히리의도 몬

아리泥沙卷涎沫回首恠龍鱗高 과물옛사
리예추미거

우민에스 는 나 어리 물도 라쉬 龍
이 비 르 르 르 惟異이니 기노라

白小

白小群分命天然二寸魚

白小 | 무리 목구수
을 치호 아잇느니

天然 흰 두寸 만

細微霑水族風俗當園蔬

當

立고 기로다

去聲이라 ○ 細微 흰 거시水族

물니 뱃도

去聲이라 ○ 細微 흰 거시水族

中옛菜蔬와 아초 누서라

八

肆銀花亂傾箱雪片虛

肆銀花 | 市肆에 드리니 罪人
고지거즈리 은 드고

箱子를 가우리니 虚
斥이 뛴 듯하도다 虚

生成猶拾仰畫取義柯

如나쇠이 쓰기슬고 이리 알 흘흐흐
나사보금義에 것더 흘리오

分類杜工部詩卷之十七

家前甘菊花

是前甘菊後可免
日暮不甚寒

故是隔三秋

此身猶未安

獨處閑居中

誰知此是君

家前甘菊花

分類杜工部詩卷之十八

花

古詩三首

律詩十三首

數庭前甘菊花

庭前甘菊移時晚

言菊以
移種耳

重陽不堪摘

言菊以
移種耳

既晚故可開花
已遲不可采摘也

一
라

○
이
풀
갈
뀌
甘
翁
이
을
여
심
군
蹶
上
을
시
프
른

其
具
부
리
라
重
陽
에
한
명
日
蕭
條
盡
醉
醒
殘
花

其
具
부
리
라
重
陽
에
한
명
日
蕭
条
盡
醉
醒
殘
花

爛
熳
開
何
益

言重陽之後
雖爛熳開花
一
라
도
無
所
益
也

一
라
○
니
리

蓄
條
하
다
醉
하
벳
다
가
례
인
衰
殘
立
고
簪
遞

野外多衆芳來擷細瓊升中堂

細瓊江指野
外衆芳在中

○ 읊고 과이 맛지 어려 끗다 온거시 할
서 허리 군기 술가 야 中堂에 올모라
念茲

空長大枝葉結根失所纏風霜이거식 허리

실오즈 몰수 랑노 니불 휘미 조미
所失 空枝 봄과 쐐리 쾌언 척도다

江頭五詠

二首 見鶴門 朝

丁香

丁香體柔弱亂結枝猶墾

墾下也 都含反 朝
丁香

이 웃드 미 보 두 라 오 니 이 즈 라 이 여
로 미 미자 차 기 노 허 혀 쌔 허 도 다

細葉帶

浮毛踪花披素艷

이 눈 니 품 뻔 터 리 를 뒤 찾고
고 쟁 친 고 준 한 고 온 거 시

深裁小齋後庶近幽人占

제 고 앗 짐 뒤
해 기 피 시 므

니 幽隱호사로 이 占 得

晚隋蘭麝守朱裳粉

호
애
어의
갓
답
도
디

身念

言丁香이 結實호 거 든 보 아 蘭草麝香

온다
풀해
아리
나로
온다
모아
먹리
말락

麗春

百草競春華

麗春也 花名이라

비 출 드 토 는 니 麗春이 당少湏好顏色多漫
당 이 안 작 더 으 리 로 다

枝條剝

剝은有餘也 丨 라 ○ 죄기아모로매

榆木 가지도 아니하면 속절망사 가지

榆木 가지

紛紛梔李枝處處總能移如何貴

此重却怕有人知

如隱逸者 丨 人雖不知나
亦畏人之知也 丨 니 라 ○

이즈려운梔李人 가지를 끌마다 다

能히 옮기시면 누나 엿래이거 시
이重호 몰래 헤나기

리로 저도 도루 혀나 봄

알리 이실가 찾는다

梔子

梔子比衆木人間誠未多

梔子를 물남과
줄비면人间에 真

實로 하니 아
니하고 하니
마於身色有用與道氣傷和
燒子
는을 漆

帛 하 누 니 其性은 하 나 라 ○ 사 구 민 모 엔
비 치 쓸 히 잇 고 道 과 다 오 하 玷 氣運이 温和

호 몬 傷害 紅取風霜 實青者兩靄柯 불그니
하 누 나 라 하 나 라 비 금

파 시 리 옛 히 르 울 吖 고 프 르 니 무 情
란 비 악 이 스 렛 가 자 들 도 노 라 無 情 移得汝

貴在映江波 녀 를 옹 거 올 뜨 디 업 수 온 고 금
울 거 를 비 취 여 이 뉴 비 貴 홀 서

라니

風雨者舟前落花戲為新句

江上

家桃樹枝春寒細雨出疎籬 기 룸 우
화 나 라 나 라 나 라

인집 人 樹 人 가 지 보 이 서 늘 개 늘
고 는 비 에 벗 난 울 해 내 와 랫 도 다
하 나 라 하 나 라 비 금

惜句引風妬紅花却倒吹
그르에 노프른으
물갓갓 누니 브리미 물근고
물세와 도로갓고로부갓다
樟水光風力俱相扶
樟교자 이쓰여 채들어비
를바누니 물빛과 부름히
에다사르자 허노자
珍重分明不來折
赤憎은 猶生憎아니方言
赤憎에 고리오 몬고장의 노나연 드기
와엇리아니 흐요 몬珍重하녀기노라
飛遲卒欲高縈渺意草細於毛
고노로여리
리오半吐노파도루고저흐느니 물때예비
물이프리브더위니 터리라와 고누도자

蜜峰胡蝶生情性偷眼蜻蜓避伯勞

伯勞 노
贈 이니

亞鳥故至蜻蜓이壁其害也 | 라 ○ 噎벌와
胡蝶은 즐거움이니를 떠어 늘 일비아 보는
자. 라 | 仁伯勞

를

遮
하天生

和裴迪

以登蜀州東亭

마을 客
하나

逢

早梅

하
노

東閣官梅動詩興還如何遙在楊州

何雁이
有楊州

早梅詩하니라○東閣樓閣옛 구워棉花
한자운興을위우니도로허언이楊升자
도다. 此時對雪遙相憶送客逢春可自由

自由 눈猶自得也 । 라 ○ 이 빼 누운對さ야
 行자 之 라 하 셔 르 스 랑 헤 리 손 보 셔 유태 모
 온온 앉나니니可幸不折來傷歲暮若為者去
 히 自由 해 라 아야 허리 오 ○ 幸解 엇기와 峩暮에 朝解 히
 亂鄉愁 言不折梅而 寄來言니何以 然者之
 아니 헤 나 잇리 보 아가 本鄉 소 랑
 노나 물어즈 頂내 헤 리 오
 畏寒發朝夕催人自白頭 7 7 은 그 인사 疾苦
 총나조 헤 셔 르 물 빠 차
 칠로 어 리 빼 셔 헤 는 다

江梅 在江邊 曰江梅 오 在野 曰野梅 오
 梅在嶺曰嶺梅 오 在官中 曰官梅 라
 梅花人 부리 실아
 래 빼 디 니 梅花 1

한류에
하도다 絶知春意草最柰客愁何
이장 보금우를

아노니 안적 나그네 雪樹元同色江風亦自
카르엔 엇데 허나오

波 눈꽃 눈나모 차 본디 売비 차로 소니 故
근미 보리 매진 절로 끝길 난 듯 허도다

園不可見巫岫鬱鬱時嗟哉故園 은 指長安杜陵
보디 몸이 리노니 巫山 스

悵暮리 蔽然淒惄도다

早花

西京安穩未不見一人來

虞德三年에 呼蕃
이 西京이 어느 대

宗이 幸陝言사니라 ○ 西京은 편안 呼가 腸
온 훈가 言사니라 옴도로 디 온 허리로 다 腸

月已江曲山花已自開
处系巴江入子微

別立正直高

月美女，微

盈盈當雪杏豔盡待春梅
盈盈正麗矣一拉

盈盈高岸柳當雪杏豔
高岸柳雪杏高岸柳高岸柳

正直高岸柳待春梅
正直高岸柳待春梅正直高岸柳

高岸柳待春梅高岸柳

風塵暗誰憂零鬢催
風塵色指兵亂也一拉

風塵色指兵亂也

風塵色指兵亂也

苦到此何不快
苦到此何不快

苦到此何不快

苦到此何不快

花底

紫萼扶千葉黃鬢照萬花
萼扶千葉黃鬢照萬花

萼扶千葉黃鬢照萬花

萼扶千葉黃鬢照萬花

春深萬花忽幾行暮雨何事入朝霞
春深萬花忽幾行暮雨何事入朝霞

春深萬花忽幾行暮雨何事入朝霞

春深萬花忽幾行暮雨何事入朝霞

此言如神女 | 行雨於暮而又入朝霞之
中 | 어니皆羨花色之艷也 | 이 라 ○ 나 | 到邑
堤 | 노 | 가문 | 平 | 疑心 | 허 | 다 | 나 | 으 | 矢 | 恐是 | 潘安縣
일 | 로 | 다 | 총 | 素 | 露 | 애 | 드 | 립 | 누 | 니 | 오 | 矢 | 恐是 | 潘安縣
堪留衛玠車 晉安仁 | 為河陽縣令 | 咎 | 植
拖李花 | 有 | 帶 | 珍 | 一 | 車羊車入
市 | 어 | 는 | 見 | 者 | 一 | 以 | 為 | 玉 | 人 | 一 | 라 | 흐 | 니 | 라 | ○ | 이
潘安 | 와 | 고 | 올 | 힌 | 가 | 전 | 노 | 니 | 帶 | 珍 | 有 | 羊 | 車 | 入
inium | 주 | 乎 | 深 | 知 | 好 | 顏 | 色 | 简 | 作 | 委 | 泥 | 沙 | 人 | 비 | 치 | 丘
도 | 니 | 아 | 노 | 니 | 泥 | 沙 | 애 | orton | 여 | 丘
문 | 주 | 익 | 아 | 를 | 디 | 어 | orton

江畔獨步尋花七絕句

江上被花惱不徹無處告許只顛狂 고 | 룸 | 우
고 | 룸 | 우

하니요 몽마 티아니 흠을 니버 헐
세히 암자 모직 업드려 미친 헤아리

南隣敍酒伴經旬出散獨空牀

라진 | 라○ 南隣이 우적술 소랑을 베들고

하노아 平牀
라비엇도다

稠花亂蘂裏江濱行步欹危實怕春

한고파
어즈러

운고지고 막고 올 마르히니 거려고 노울기

우려이려이 眞實로보이 할가지해니

라詩酒尚甚驅使在未須料理白頭人

言雖
나尚可以當詩酒之後也 | 라 白頭人은甫

1自謂자 | 카자 수하고 라旦 豆이立를 오

하려이거리로소니구여여이라센사
민이라하야해아라마풀다니라

江深竹靜兩三家多事紅花映白花
고로마
가정한 두어지백어즈러운을報答春光知
고기한고풀비복도다

有處應頌美酒送生涯

수를어거人生보내

報答春光知

이리라○
이도로매도하고로인생을보내를다로다

東望少城花滿烟百花高樓更可憐
少城은
호다百花棲는百花潭上之樓○東북
그로少城을보라○나고자나예고도우상
느니온가짓곳픈노운다誰能載酒開金盞喚
樓는伍어루듯오

取佳人舞繡筵

취연 히수를 시려 온정 온여
온자로 몬불리며 가는

진한 흔듯지 춤

자제 허려고

黃師塔前江水東

황사람터 앞에 물이 흐르는 강물

春光嬾困倚微風

봄날의 풍경에 험한 날씨에 험한 바람에

可愛深紅愛淺紅

나들이에 깊은 빨간 꽃과 얕은 빨간 꽃을 좋아하는

一簇開無主

한 송에 꽂히는 꽃을 좋아하는

人

나랑 호오며 여리를 봄

그

나도 나랑 함께 봄

黃四娘家花滿蹊千朵萬朵壓枝低

황사람네 집에 만개한 꽃들이 지나가면서 높은 가지에

고지같이 헛고 드는 약속이나 주문 들 줄과

만들구리가 가지를 지풀위는 주제 옛도다

連戲蝶時時舞自在嬌鶯恰恰啼

미끄러워
노는 바

中時時에
웃고 떠는
恰하 우듯이

不是愛花即欲死只恐花盡老相催

即欲死
노역도

스랑 허우 마리 라 이고
죽고 져 호 미아 나라고
자리에 땅에 놀 구미서

枝上
진위에
하나 라
繁枝客易紛紛落嫩葉商量細

한 가지 눈 써 이어 즐려 이고
내려 놓 라

細開
온갖 부리 눈 헤아려
고느 라

草 古詩一首 律詩二首

除草

草有害於人曾何生阻脩
言草之毒者一不

於遠地也一

라 ○ 푸리사로 미네害호거시잇
느니 엿래일로 주먼류가나리오

其毒甚蜂

蠱其多彌道周

그모니로운班子리라와
하나그하나로있구리예고

도다 清晨步前林江色未散憂

물고자배
암수프리

간녀여고통비제사竺刺在我眼焉能待高
로를흔디몬호라

刺在我眼焉能待高

秋

言急於除去一라不待秋日之枯萎一니

라 ○ 가식내누비잇는듯한나잇데解可
도운고로한霜雪一霜凝蕙葉亦難留여는

기늘우라오
오면이우를주를나리니라 ○ 죄라와눈傀
호번거제얼의연蕙草人입도인어므로쇼

이 기 려 荷鋤先童稚曰入仍討求討求는 풀이
우니라 ○ 호인에 이 아 하루론 쳐 轉致水
月월시사라 ○ 호인에 이 아 하루론 쳐 轉致水
가하마 두루자즈로 차자자자도다
中央豈無雙釣舟 吉釣舟로載而棄水中也
一라 ○ 응게 없나온 티가
게호니잇비두고기
았는위업스리오
丘 이는모로아으리잇矢느들니근니라 ○
도 단불휘수이터후리나니구일기
여넷 두들줄브 自茲藩籬曠更覺松竹幽
벗게하리아
이르티 물하회하니 도솔와 父夷不可闢疾惡
信如讎 빅여부료온 諭티 몬홍기시니 모인
 것 아취로온 真實로 惡解그티 모인

라

庭草

楚草經寒碧

楚人正리 치위를
나비야 뜨르니

언뜻 바쳐 누비
둔전도다

舊低收葉舉

언뜻 바쳐 누비
둔전도다

新掩捲牙畫

언뜻 바쳐 누비
둔전도다

언뜻 바쳐 누비
둔전도다

舊收斂之

언뜻 바쳐 누비
둔전도다

逢春而舉起

언뜻 바쳐 누비
둔전도다

言低

언뜻 바쳐 누비
둔전도다

舊收斂之

언뜻 바쳐 누비
둔전도다

逢春而舉起

언뜻 바쳐 누비
둔전도다

步履宜輕過

언뜻 바쳐 누비
둔전도다

開筵待屢供

언뜻 바쳐 누비
둔전도다

供色一供筵也

언뜻 바쳐 누비
둔전도다

肴花隨節序

언뜻 바쳐 누비
둔전도다

不敢強爲

客

客은 容飾也 一라。 곳도 皇時節 을 王
치고 구티 어 고 훈파 行 유 올바니 す 노 라

薰蕕

摧折不自守秋風吹若何

不自守도 이 시 누
기 깃드 드를 시 라.

것 드 리 죄 모 온 守 하 며 몇 해 노 소 니

이 죄 모 온 미 두 니 것 미 해 라 오.

暫時花

戴雪樂處棄沈波

아니 한 꽃 고 지 누 는 옛 는

體弱春苗早

체 레 드 체 험 죠

蓄고

體弱春苗早

蓄고

失 이 디 미 르 고 폐 기 기

이 미 르 가 스리 하 도 다.

江湖後操落亦恐歲

이 거 시 티 드 떠 러 일 서 가 니 時節 이 거

蹉跎

그 리 촉 가 히 니 라. ○ 그 러 매 쇠 이 어 여

미리 뉴미 後에 而 누니 仁
기어 차리 차자 전 노락

竹
雜詩三首

嚴鄭公宅同謀竹得香字

綠竹半含籜新稍纔出牆

籜은竹皮라 ○ 고
본에 진반 거즈

色侵書帙晚墮過酒

鑄涼

비춘書帙人나조 허侵陵하니 고정
한정 鑄人付을 허우니 나고정

洗娟娟淨風吹細細香

娟娟也 美也 一斗
비기 스니娟娟하조

但今無翦伐會見拂雲長

고본은 미부니
細히 구암도다

모직하여 꿈버히디마라모로 떠
구루물열아저기로 몰불나로다

從韋二明府續處覓綿竹三數叢

華軒鶴鵠他年到綿竹亭亭出縣高

指明府
華軒

之軒이라
綿竹은
竹名이라
○ 빗난
軒轎이
舊號호되
여느
한예
나르러
가니
綿竹이
노

파구운하내 江上舍前無此物幸分簷翠拂

와다습티라

라

波濤 江上宿南의院花溪上 舍也 一 라

수는
남의
院花
溪上

舍也
나

라

고
름
웃
집
알

된
이
거
서
업

스
나
행
례
교

론
거
슬
는
화
보
내
려
를
별
일
개
하
라

苦竹 竹名이라

青冥亦自守軟弱強扶持

青冥은指言山호
○青冥에由列

모른가책도소니보니라外味

고진마하리워자맛모다

卑春鳥疑마시쁘니녀로멧벌어지어여마

고폐기우가오니는새

棲心호矢

中軒墀曾不重前伐欲無辭

言階墀예不種
此竹言서人皆

伐之니라○軒墀예일주重히너기다아니

호나비하가문칼오지호니문호矢다

幸近幽人屋霜根結在茲

幽人운甫|自謂
라○幸허幽人의

지의갓가모니세리옛불
前마차이어과잇도

木 古詩七首 律詩七首

古柏行

孔明廟前有老柏柯如青銅根如石

孔明廟
慶州八

一라。孔明人廟人皆稱之曰古樹
니가 가지는 그 룬구리 산근고불 묵는 돌은 도

다霜皮溜雨四十圍黛色參天二千尺

세리
마조

거그리비자자마운아느미오드론
비자우노해다흐니우리자히로이

君臣已

與時際會樹木猶為人愛惜相遇也

나恩
나인

其人故로愛其樹也
하우로우로이

巫峽長月出寒通

미우와언도우
미우와언도우

雪山白

구루미오니氣運이巫峽이간되니
엇고두리도두나竹늘호연雪山이

허연워스憶昨路繞錦亭東先生武侯同闋

宮先生는劉備오武侯는孔明이각成都在
武侯人廟 |附先生廟호나라○曰주옹
明길홀魏亭東의그로버드려가물수랑崔

立

내先生과武侯재기증廟이호워려라崔

冤枝榦郊原古窩窕丹青戶牖空

노정자기

의햇두들개비루와나김수
원찰호문戶牖 |부였더라

落落盤踞雖得

地冥冥孤高多烈風

落落은高負 |라○旨

어더사나아우라히외로의扶持自是神明
오노파마온모드미하도中扶持自是神明

力正直光因造化功

더위 차파 베운스위로
이 선명의 힘이로소니

正真莊오본대로로
화사班을원호도대

大廈如傾垂梁棟萬牛

回首丘山重

큰자비수다가기울면
萬仞그어가노라머리를도로회

萬仞그어가노라머리를도로회
邱丘山그티모거아티기

世已驚未辭前烈伐誰能送

비출나도디야나
한야도세계쇠하

마늘라느니비후물마다하디아
나전아룬뉘能히비혀보내리오

苦心豈免

容蟻蟻香葉終經宿鸞鳳

는온이면잇대가
마도려습을免

호리오곳다온나픈으자
매鸞鳳자온다내리르다

志士幽人莫怨嗟

古來材大難為用

言有材者一不得見而也

一니라 ○ 莫佳 진士와

幽隱 한사고로 忽嗟 하니 問 말라 啟 네로 呂 오매

耕蕡 이 쿠 기 는 여 유 이 어 여 우 나 라

四松

四松初移時大抵三尺強

래 노남 가취명을
여사 물재 대抵

자 성 자 성 자 성

別來忽三歲雖立如人長

여 오

매은드시 세 하 나 멍 으 리 서

會者根不拔莫

計枝凋傷

모로애 불휘파 려디 아니 호온보

다니 하 幽色韋秀發疎柯亦昂歲

幽深호비
자후하秀

가지

所捕小藩籬本亦有隕防

登高 나도 은가지
되오와 맛도 다

終然振撥指得愧斗葉黃

振撥은 다 달어 이어 报
本譴松이 러니 이제 허려 부려

노양이라 諒本譴松이 러니 이제 허려 부려
실서니 피이 우니 라 ○ 고자 뒷 둔 죄 균을 흔

本來伍 악 줄오미 잇더니 무대에 다 달이 치

야부리니 조문니 피이 우려 누리 호온시 러

공부 그 故林主黎庶猶未康

古兵亂에
其居 | 니况敢保松守아 ○ 구금에 빛 누포

렛남자하로각하야리마百姓도 오히령便

安티 몽후 過賊今始歸

春章滿空堂
寶應元年遷
에前1遷

蜀亂言 야述詳聞言 다가 廣德二年 春에 再

來蜀言 나라○ 盜賊을 過去야 했니 다가 이

제아비 道也 라모니 보잇 프覽物歎衰謝及
리빈지 비 그 드호 옛도다 見物歎衰謝及
茲慰淒涼 時物을 보고 늘 그 런 感歎之 다니
그미취 와淒涼直 直感歎之 미나
노清風為我起洒面若微霜 風起高日月 미나
라 起洒面若微霜 風起高日月 미나 러
누취但리고 도다 微足以逸老姿聊待僵蓋張
호취리고 도다 微足以逸老姿聊待僵蓋張
老姿江浦 一自 蘭라僵蓋 一謂松也 一 라
예사각서足하매 공내늘근양 不自持내리
로소니니이운蓋頃 ト 我生無根蒂配喬赤菟
호몽기돌오노라 無根蒂 ト 我生無根蒂配喬赤菟
茫無根蒂 ト 言賴泊 無空也 야 不得與松共
茫로長為伴也 一 라 〇 내불회하고 고리암
수니더를 申言야 行 有情且賦詩事迹兩可
이인아 〇 과古 〇 도다

七

보다 아실서 그 를 잊노니 일勿矜午載後
자자 최초 둘을 훈네 줄여로다

十一

澹蟠宮蒼言千載之後勿審參天而長
此非南斗及見也——

44

여유를 품으니 말라

萬
卷

有相生崇岡竇竇狀車蓋

장구기 노동의
벗느니 우열우열

七

昨夜恰遇僕龍虎姿生當風雲會
蓋又人臣也

古文

高車라. 懶寢하여 聞고 보의 을 졸
니에主意는 고금과 주름오다 뉴를 쌓으

廿六

神明依正直故老多再拜神明。正直。故。老。多。再。拜。

그 난 죽을 때
리하도다

豈知千年根中路顏色壞

謂得病也

예라. 즈은 데를 이션 불취소이
예顔色이 허를 고친 이느 알리고

出非不得

地蟠據亦高大歲寒忽無憑日夜柯葉改

古

진 험엇디 온 험어 아니하 여 나리 보려고
진노프 여호 진우 고치여 예 忽然이 依憇이

온 험어 죄나 대가지 차크라改变하矢나 대鳳領九雛哀鳴翔其

外鵠鶴志意箇卷子穿穴內

此二有崔阡이
績郭英人하고

叛據成勢하니라 대鳳은 此英人도 繢物이
대雀阡이니라. 대鳳은 대 喜計이를 거느
려 늘 대우하니 그가 지나 飛翔하니 色通鵠이
느다. 그는 대우하고 穿가를 카리나 웃구 웃蛙이

들위

三

客從何鄉來

立久呼怪

客自謂也

立久

斗

呼嘆立

斗

呼嘆立

斗

告禱

告禱

告禱之道

一

茫昧

求元精理

告禱難倚頰

言細思天理立

而福

立久

斗

呼嘆立

斗

呼嘆立

斗

告禱

告禱

告禱之道

一

茫昧

立久

斗

呼嘆立

斗

呼嘆立

斗

告禱

告禱

告禱之道

一

茫昧

立久

斗

呼嘆立

斗

呼嘆立

斗

告禱

告禱

告禱之道

一

茫昧

病橘

群橘少生意雖多亦奚為

最摘本이 사를 뜨

미 죠 그니 비록 한

臣佐以自惜哉結實小酸澀如棠梨

棠子

有赤白

하리오

惜哉結實小酸澀如棠梨

棠子

有赤白

二色 亨ニラ ○ 亨正다 이 름위조 미剖之盡
利ニ 나 쇠고별취 素梨へ 앗근도다 剖之盡

蠹蟲采掇棄其宜

言不宜采掇也 | 라 ○ 蟲
하나나 벌어자로 土니

오매 앗다 호온 紛然不適口豈止存其皮

노

일호려로다 대온 紛然不適口豈止存其皮
노

손히 남서거풀 丹詮이 일은 丹班아니라 이베 앗
디 몰하 다비풀이라 ○ 이즈 데아이 베 앗 이

온 丈니잇 비그거프 簫簫半死葉未忍別故
리 이설 作 룸마리오

箫簫半死葉未忍別故

玄冬霜雪積况乃迴風吹

비오례서리학

玄운여회로리嘗聞蓬萊殿羅列瀟湘姿

瀟

애 有 捣 田 捣 田 乎 、 니 每 嵩 入 貢 乎 、 노 니 也
일 주 드로 于 莲 莖 贶 而 席 湘 芷 乎 、 지 비 렬 도
다 此 物 嵩 不 稔 玉 食 失 光 煙 一 稔 云 熟 也 । 라
食 이 나 言 捣 病 不 熟 乎 、 빠 無 以 供 貢 乎 、 니 王
食 예 無 光 也 । 라 〇 이 거 사 嵩 예 낙 니 아 니
라 니 남 君 乍 乍 寇 盜 而 憑 陵 當 君 减 善 時 汝
에 비 치 업 도 于 寇 盗 而 憑 陵 當 君 减 善 時 汝
病 是 天 意 吾 懊 罪 有 司 一 必 痊 暢 自 責 乎 、 시
나 수 捣 之 病 乎 、 天 意 乎 、 使 吾 君 으 로 欲 痊
膳 이 어 는 反 罪 有 司 之 不 供 也 । 라 〇 盜 贶
이 오 하 려 온 치 乎 、 니 남 故 物 膳 라 ى 申 賦 當
하 옛 乎 、 니 비 病 乎 、 데 하 는 云 ى 시 4 1 1 1
有 司 罪 乎 、 노 라 悅 者 南 海 使 奔 謄 故 伎 百 馬,

死山谷到今耆舊悲傷漢人南海
南歸入使臣惟獨以中霤枝逐
마라잇고리부족타니이제나
트리늘근넷사로마을간다

枯木

蜀門多櫻櫛高者十八九級_은音驟_기王櫛
一有樂無枝_{하니}吏可_할繩_이니라○蜀門
櫻櫛_나工_노平_평니아연_연아_아魯_공子
其皮割剥甚雖象亦易朽_그거_고를_벗구
其皮_{하니}臣_신徒布如雲葉青青歲寒後_{구름}구름_그
其皮_{하니}不_부知_지如_같言_{하니}非_비魯_공

치운後에 퍼려 하 交橫集斧斤凋喪先蒲柳
야 하 艾 하 풋도 다 蒲柳는 生澤中 하 풋니 하 望秋先零 하 풋니 하 라
蒲柳 하 生澤中 하 풋니 하 望秋先零 하 풋니 하 라
○ 하 르 하 뱃 하 기도 하 죠 하 모 하 두 하 면 하 빠 하 류 하 듀 하 미 하 蒲柳十
라 하 와 하 몬 하 傷時苦軍乏一物官盡取 하 言蜀人이
제로 하 딸 하 傷時苦軍乏一物官盡取 하 捕皮 하
야 하 賣充軍需也 하 1 라 ○ 이時節에 하 舒 하 아도 하 聞軍糧
이 하 업 하 1 하 物이 하 라 하 도 하 구위에 하 舒 하 아도 하 聞軍糧
노 하 差爾江漢人生成復何有 하 亂 하 떠 하 너 하 江漢
라 하 差爾江漢人生成復何有 하 亂 하 떠 하 너 하 江漢
미 하 어 하 사 하 라 하 이 하 츄 하 有同枯槁木使我沉歎久
佐 하 어 하 느 하 이 하 시리오 하 有同枯槁木使我沉歎久
이 하 운 하 樵木과 하 그토 하 미 하 잇 하 는 하 달로 하 死者即已
호 하 어 하 개 하 피 하 들 하 호 하 몰 하 모 하 라 하 개 하 치 하 달로 하 死者即已
休生者何自守 하 주 하 그 하 니 하 눈 하 곤 하 헤 하 암 하 려 하 니 하 와
休生者何自守 하 주 하 그 하 니 하 눈 하 곤 하 헤 하 암 하 려 하 니 하 와

가을사湫湫黃雀喧側見寒蓬走
리오
다우르적시노Yellow雀이역주리노내
사흘흘다보자노로론기우려보노하나
形影乾摧殘沒藜莠
念爾
리프어리에
페도다

枯柂

梗柂枯峰嶺鄉黨皆莫記
梗은寄南이나
而酸호나라崩嶺은高負나라莫記는이운
前臣모론사다○梗柂이우리나라嶺은이우리
나모로矢다
不知幾百歲慘慘無生意
아

온 흐리로 다 치즈 온 휴요

슬 퍼사 롤리 디업 도다

上枝摩皇天下根

蟠厚地 웃가자 는 큰 치

홀길로 야 렛도다

雷霆杵萬孔 蟲蟻萃

근돌에 둘려 라기 빼 티

니 一萬舌 칸 벌어 자와

모아야 미 왜

도다

東雨落流膠衝風奪佳氣

江東이

모아야 미 왜
도다

東雨落流膠衝風奪佳氣

夏月暴

雨露呼為東雨 | 니

라 柏木애 有膠 | 如香

可燒 | 비 라 ○ 쇠 나

기 예 흐르 는 지 니 들판

니 二 부는 봉우리 아름

白鵲遙不來 天雞為

다온 氣運을 앗았다

愁思止 알서不來而愁也 | 봉우리

愁思止 槟木이既枯死 | 白鵲天雞

不可接 | 不可接 | 白鵲이 지

즈로 모아 아니고 天鵝猶含棟梁具無復霄

노為高야 새롭지 矢다 猶含棟梁具無復霄

漢志良工古昔少識者出涕淚枯亡十猶可

言此猶 이雖

為林梁이 인아로 良匠을 末遇故로 識者니
舊之니라○ 오 하려 檀梁이 고름 거슬어 찾

고匠하늘 배울 아갈 뿐 든법도 다여 딘工匠
이비록 위그니 알사루 문는 으를내 놋다

種榆水中央成長何容易截承金露盤蔓根

不自畏

漢武帝作承露盤○ 니라 約叢 는弱
貞○ 라 約榆木이 易長이 인마 도然

奉金露盤이면 其質本柔弱(야 難以 摧柱)
니以比小人이 徒大事而必至顛覆자다○

느릅나무를 놓아온다시고 나조라오마조도
침진하는 이에 金露盤을 바티연 보두 많기

니스카로 치고
되나니호리아

海棕行

左絲公館清江濱海棕一株高入雲

左絲 錦
錦 雲

在清江水之左也 | 라 ○ 左絲 예스 구워지비
 올고고로 ? 이로소니 海棕 나도 高株 | 노
 파구 봄서리 龍鱗犀甲相錯碧蒼綾白皮十
 예드 러트 도다 龍鱗犀甲相錯碧蒼綾白皮十
 抱文 龍衣 비늘와犀牛의甲이 사르벗짓노
 도스하니 토론 모자 한거프 리얼을아로인
 비치 自是衆木亂紛紛海棕焉知身出群
 로다 言
 本이 自不與棕으로並也 | 라 ○ 스식로이
 물남기 어즈 라이 繡齡 한디안령 海棕은
 어느도 이우례特移栽北辰不可得時有西
 出흐물 알리오

城胡僧識

上句止言欲移植帝宮이라도
下句止言大材一生

非其地而中國人아무리
○吉闕에 올려다니 심구 물리하던디

몽하리로 소니時예 西域
 엇되경곳아라보矢다

柳邊

只道

梅花發那知柳亦新

오직梅花 | 剛 |
 니라니고니워어

느비드리

伍州로

枝枝惣到地葉葉自開春

가지마다다竹해나르렛도다 紫燕時翻翼
 고납마다제보이렛도다 紫燕時翻翼
 不露身취비時로늘개루두위티니 | 곳漢
 고리눈오미나다아니흐矢다

南應老盡霸上遠愁人

漢南은霸之所在樟州니甫一自喻其老

玄甘爾上은猶長安玄리憶故鄉也니라○漢南에有當이불기입스리로소니霸上

엔이리취사리물
사롭게하느다

高柳

柳樹色宜簷江邊一蓋青

柳樹人비자아도
아도호니그로그

이호蓋此
호도호도다近根開樂園接葉製茅亭

을휘

자이樂시드는圃를열고
나페다하茅亭을지오라落景陰猶含微風

미노하에고운히오히려옹고저기
韻可聽부는모르에소리可히드림죽호도

다尋常絕醉因卧此片時醒

告。네 고장。술 취
하야 애버 도이

아기 누으연 片
時에 봐 矢다

嚴鄭公壻下新松得露字

弱質豈自負移根方爾瞻

마니라온 웃드문
이미지가 복서리

오음거심士是轉

비루리로土
야호로다를보노라

細聲聞玉帳疎翠近

珠簾マ는시리를 玉帳에

부드루리로土
비흔珠簾에 芬芳도아

見紫煙集虛蒙清露啞

이노소암기크며 몰
호온니고, 나라○물

근내보도 온보디 몽호리로 소니
이스리자주을虛히 대입矣다

何當一百

文欹蓋擁高簷

謂松之狀如偃蓋也。라니
이느자기一百丈 이노파기

注蓋 노포집기
술글此리 려노

憑韋少府班見松樹子載

落落出群非擗柳青青不朽豈楊梅

擗는음
나리라

이느는
徒言松之非柳梅之比하니라노파
우래내착다노피리하야

數寸裁

霜根는言松根之耐霜也하니라
근본비즈근본한번풀고재우야

歲種

을為하야
잇노

리잇불화두이寸만한
歲種을為하야잇노

憑何十一少府邕覓榦木數百裁

草堂塹西無樹林非子誰復見幽心

草堂人
西

人녀자나모수프리업스니그덕아
니면위정幽深호모우를보리

範閑榦

木三年大與致溪邊十畝陰

榦는음歇가甫
1自註蜀人이

以燒로為薪수는니3년세可燒1니라
幽陰는10畝에시모기보내라한노아리라

○榦木이세히데크문비트드릿노아리
내고잇발아침을한그늘호흡주어보내라

樹間

峯家雙甘樹婆娑一院香

峯寂은高靜也
라심하고그안호

斗廿子八

告
告
告
告

婆娑交柯低几杖垂實碩

衣裳

衣
衣
衣
衣

衣
衣
衣
衣

滿

歲如松碧

歲
歲
歲
歲

時待菊黃

如松之碧也
一叶

○

歲如松碧同時待菊黃

如松之碧也
一叶

立身處太川乞
立
立
立

立
立
立
立

露乘月坐胡床

立
立
立
立

坐
坐
坐
坐

告
告
告
告

惡樹

獨遠虛齋徑常持小斧柯

獨
遠
虛
齋
徑
常
持
小
斧
柯

剪草木長常刈

도 치 런 가 幽 隐 成 頗 雜 惡 木 前 翼 還 多

幽深夜
마치히

진 亦 라

이 러 주 노

자 나 사 오 나

마 치 히

온 낭

온 낭 그 봐 히

도 도로 하 도 다

마 치 히

棲 奈 放 何

拘 杓 也 一 名 地 骨 皮

나 腹 之 亨 耳

마 치 히

蔽 障 故

拘 杓 也 一 名 地 骨 皮

但 翼 去 惡 木 有 以 不

마 치 히

未 枝 故

拘 杓 也 一 名 地 骨 皮

但 翼 去 惡 木 有 以 不

마 치 히

婆 婆

甕 디 몬 흑 村 質 은 낙 가 르 마 속 절

마 치 히

分類杜工部詩卷之十八

